

아듀! 2023... 고생 많았습니다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과 Y 프로젝트, 복합쇼핑몰 등 갈등과 기대가 교차하며 다사다난했던 계묘년의 해가 저물고 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지역 현안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되어 시·도민들의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사진은 광주 무진대로를 질주하는 차량과 광주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궤적을 레이어 합성했다.

나건호 기자

‘챗GPT’가 바꾼 일상... 미래를 대비하라

갑진년 첫 해돋이 본다

광주·전남 오전 7시41분 예상

전남일보 선정 2023년 키워드

최초로 ‘네이처10’ 비인간 선정
방대한 자료 수집·재창조 혁신
가짜뉴스 악용 사례 등 부작용

코로나19만큼이나 일상 곳곳의 변화를 부른 올해 화제의 사건은 단연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상용화였다. 올해 생성형 AI 돌풍의 중심엔 챗GPT가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가 한해 세계

과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을 선정하는 ‘네이처10’에 챗GPT가 선정된 것도 올해의 가장 큰 변화를 챗GPT가 주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네이처10이 비인간을 선정한 것은 역대 최초다.

올해 챗GPT는 등장부터 압도적이었다. 서비스 시작 하루만에 이용자 1000만 명을 가뿐히 넘겼다. 챗GPT는 논문, 기사, 번역 등 사용자가 원하는 포맷을 바탕으로 방대한 자료들을 재구성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본보는 지난 6월21일자 지면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군수의 역할을 각각 물었다. 챗GPT는 단 몇 초만에 “광주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광주시장,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수, 광주 군공항을 무안군에 이전시키고 싶은 전남도지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다”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해진 답변만 반복하던 답답한 기존 챗봇들과 달리 챗GPT는 마치 살아있는 인간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 ‘창작’까지 챗GPT가 해내면서 인간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도 챗GPT의 등장 초기부터 큰 관심을 쏟았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시는 챗GPT 태스크포팀을 만들어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했다. 전남도에서도 챗GPT의 유료 계정을 전공무원에게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했다. 기초 지자체에서도 챗GPT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챗GPT 따라잡기 열풍이 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생성형 AI의 극초기 시장단계로 만만찮은 혼란도 예상된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챗GPT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다. 생성형 AI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규제 논의가 서둘러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AI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음성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선동하고 조작하는 허위정보가 공정한 선거경쟁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 AI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 3면에 계속

최황지 기자

신정 휴무로 신년호 1월 2일자 발행

광주사람들 (583/1000)

지민주
스타벅스 직원

▶ 관련기사 16편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 탐환경건설



(주) 탐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